

■ 지평지성 소식 ■

[공익]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外

지평지성은 지난 4월 13일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토요일'은 기업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판매함으로써 나눔과 순환을 지향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번 행사에 2,800점의 물품을 기증하고 행사 당일 30여 명의 임직원들이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물품 판매를 도왔습니다. 야외 이벤트로 와플도 판매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아름다운 가게의 정기수익 배분 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 사진]



지평지성 공익위원회에서 3월 23일 '겨레얼학교와 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20여 명의 임직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겨레얼학교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겨레얼학교는 탈북청소년과 탈북2세 아동, 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지평지성과 구성원들이 매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지난 2월 26일 아쇼카 재단 관련 2013 제1회 공익강연이 지평지성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쇼카 재단은 70개국 상당의 국가에서 경제, 교육, 보건, 의료, 환경, 인권 등과 관련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 개인을 'Fellow'로 선발하여, 금전적 지원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아쇼카 재단의 다른 Fellow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 및 교류 기회, 전문적 자문(프로노보 컨설팅 서비스, 법적 지원 등) 등을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최근 아쇼카 재단이 한국 지부인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을 설립하였는데, 지평지성이 설립형태, 설립절차 등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행규 변호사, 임승혁 공인회계사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아쇼카 재단 및 아쇼카 재단이 추구하는 공익 활동의 형태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진]

